

지하철 개통·U대회 ... 민선 후 비약적 발전

광주광역시 30년 <글로벌 도시 꿈꾸는 광주>

제2순환도로 개통 ... 도로 975km→2345km로

광주비엔날레·亞문화전당 개관 ‘문화수도’ 탈바꿈

1995년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도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았다.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작된 민선 1기 초대 송언중 시장에 이어 고재유·박광태(민선 3·4기)·강운태 전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했다.

민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광주는 도시기반 시설이 괄목할 정도로 확충된다. 먼저 2008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도 확정됐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광주시 외곽을 잇는 제2순환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이 크게 편리해졌다. 또 도로 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나 총연장은 975km에서 2345km로 확장됐다.

이 기간 광주는 ‘문화수도’로 변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맞는다. 지난 1995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전시회인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는 ‘예향’에

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토대가 됐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렸고, 2013 세계한상대회, 2015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각종 국제행사를 알차게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량을 국내 외에 과시한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987년 21만3000원에서 지난 2014년 기준 2044만8000원으로 100배 가량이 늘었다. 35억불이던 수출은 지난 2007년 광역시 중 세번째로 100억불을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수출 162억불을 달성하는 등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크게 변화했다.

산업단지도 본촌·소촌·송암공단 3개에서 작년말 8개로 늘었고, 258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면적은 2274만4000㎡로 종업원

수만 6만명에 달한다. 현재는 진곡산단과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빛그린산단(광주·전남 접경지역)이 새로 조성중에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4개 권역에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같은 해 1월에는 9개 지구에 광주연구개발(R&D) 특구가 지정돼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진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이 확고한 생산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남고속철(KTX) 개통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원하면서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의지 부족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부족 등 때문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청렴 골든벨 퀴즈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 골든벨 퀴즈’에서 참가자들이 정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서구청 제공>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입장객 120만명·수입 46억

33일간 일정 마치고 폐막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3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폐막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람객은 폐막 하루전인 지난 30일까지 119만5932명으로 최종 1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람객은 4만8135명이었다.

입장권과 임대료 수입은 32억원, 산업관과 표고버섯 등 농산물 판매관 운영수입은 14억원이었다.

박람회장 등 시설 건립에 들어간 109억

원 등 박람회 예산은 190억원이었다. 전시관 등 시설 사후활용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전시관 체험 누계 인원은 140만명으로 주제관(93만명), 건강증진관(19만명)이 많았다.

특히 국제관에 참여한 일본 배꼽 테라피 부스가 몸의 중심인 배꼽 주변 장기를 대위 활성화하는 힐링 마사지로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 목표치(95만명)를 넘어선 데는 664개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약과 함께 비만·탈모·아토피(청년층), 우울증·

갱년기 질환·관절통(중년층), 고혈압·당뇨병·간 질환 등 대상과 주제별로 상담·검사를 체험하게 한 프로그램 구성이 큰 역할을 했다.

46개국 85개 단체, 국내 175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학술대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으로 정보를 교류한 것도 성과였다.

전남도는 통합의학학을 포함한 생물 의약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장흥, 화순, 나주를 잇는 전남 중부에 생물의약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태풍 ‘차바’ 피해

전남 어민 13억 지원

지난달 초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총 30억 원의 용자가 긴급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피해 지역인 전남, 경남 등 6개 지역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지자체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전남 13억7000만 원, 경남 10억5000만 원, 제주 4억8000만 원, 경북 8000만 원, 부산 및 울산 지역에 각각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용자 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 금리(11월 0.96%)이며, 용자 기간은 1년간이다.

/연황뉴스

광주시 자치구 재원 교부금 0.6%인상 추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70억~80억 증가

광주시가 구청에 나눠주는 재원 조정교부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부액은 2700억원이었으며 내년 부터 5년간 매년 70억~82억원이 더 많아진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3%에서 23.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북구로 765억원, 가장 적게 받은 구는 서구로 418억원이며 올해 조정교부금은 모두 2700억원이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운용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에 따라 보통세 수입액에 조정교부금 인상률 0.6%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률 0.6%를 적용하면 현재 조정교부금의 재원 교부율은 23%에서 23.6%로 올라간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3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1년도 70억원 2차년도 72억원, 3차년도 75억원, 4차년도 79억원, 5차년도 82억원 등이다. 시는 이를 지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조정교부금 비율은 서울 21%, 대전 21.5%, 전국 평균 21.98%이다. 광주는 타 시도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상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초 행자부 권고 인상률은 2.9%였으나 시 재정 등을 감안해 광주시와 자치구 협의의 거쳐 인상 비율을 최소화했다. 행자부가 조정교부금 인상을 권고하면서도 광주시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교부율은 기존 19.2% 그대로 적용해 광주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정례회 돌입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일 각각 정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53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회기에 들어간다. 정례회 기간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87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올해 마지막 추경안도 심사해 시의미반영 사업 예산 심사,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등을 정리한다. 또 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며 조래안 33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39건의 일반안건도 처리한다.

시의회는 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의견청취의 건 등도 처리한다.

전라남도의회도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4일간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낙연 지사와 장만재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도청 및 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내년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에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 순지·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개의 안건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어업인 ‘안전쉼터’ 내년 16곳 추가 설치

전남도는 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쉼터 설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업인 안전쉼터는 폭풍과 같은 험한 날씨에는 대피소로, 평시에는 탈의실이나 세면장, 어업 기자재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은 올해 전국 20곳 가운데 6곳을 조성했다. 한 곳에 약 1억원을 들여 100

㎡ 내외로 설치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아 2017년 전국 대상지 20곳 가운데 신안군 7곳, 보성군 4곳, 진도군 3곳, 완도군 2곳 등 총 16곳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어업인 안전쉼터 40곳 가운데 22곳이 전남에 조성되는 셈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선대학교 2017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일정
2016. 11. 16.(수) 09:00 ~ 11. 18.(금)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www.jinhakapply.com)

약학과 입학우수장학금

구분	장학금	선발기준
입학우수장학생 1	4년간 등록금 전액	PEET 전 영역 백분위 평균 상위 3% 이내
입학우수장학생 2	4년간 등록금 1/2	PEET 전 영역 백분위 평균 상위 5% 이내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나군	일반전형	52명
	광주·전남지역대학출신자전형	15명
	광주·전남지역고교출신자전형	8명
	합계	75명



2017학년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수학, 화학, 생물계열을 각 3학점 이상 선수과목으로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계열별 선수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수한 선수과목이 없는 경우 ‘유사선수과목인정 신청서’와 ‘강의 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선수과목 인정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합니다.

유사선수과목 인정심사 안내

- 접수기간 : 2016. 11. 1.(화) ~ 11. 8.(화) 09:00 ~ 17:00
- 제출서류 :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필수)
- 결과발표 : 2016. 11. 15.(화), 개별안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 타 : 선수과목 및 유사선수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5페이지 및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기 바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입학팀 062)230-6666
입학처 홈페이지(ibhak.chosun.ac.kr)

